

무한경쟁 시대 국력결집이 중요하다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얼마전 한국의 한 전자업체가 미국에서 전시품으로 선보일 대형 PDP TV를 현지 호텔 로비에서 도난당했으며 이것이 기밀탐지꾼의 소행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핵심기밀을 빼내기 위한 업체들 작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쉽게 깨닫게 하고 있다.

남을 능가하기 위한 경쟁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나 잠시 방심하면 경쟁대열에서 낙오돼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되기 쉬운 '대경쟁'의 시대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 변화가 정해진 패러다임 속에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이뤄졌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일찍이 제시한 '기러기떼(雁行)론'이 바로 이를 설명해 준다. 어느 국가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발전격차가 있는 국가들이 뒤따라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경쟁구도에 '과괴'가 일어나고 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거나 무명의 기업이 순식간에 일류 기업으로 부상하는가 하면 일류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경쟁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따라잡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 변화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이를 좌우하는 노동과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큰 격차가 나타난다. 동일한 노동력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더 좋고 더 많은 양의 자본이 결합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된다. 쉬운 예로 눈에 모를 심을 때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지만 트랙터 같은 농기구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진다. 또 동일한 노동과 자본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기술이 결합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좋고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좋을 경우 일처리 속도는 더 빨라진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기술(IT)의 발전 정도가 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IT는 변화속도가 전통기술에 비해 훨씬 빠르므로 각국이 이에 얼마나 집중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에 큰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최근 IT 관련 산업분야에서 선진국을 맹추격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단말기제조 기술보다는 단말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에서 한국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과 비교할 때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으나, 네트워크 상에서의 동영상이나 음성배신 기술은 한국이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98년 이후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돼 현재 보급률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는 낮으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게 됐다.

디지털 전자제품에서의 한국의 추격은 괄목할만하다. 대형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업체의 비중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20.5%, LG필립스가 14%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PDP TV의 경우 대형제품 생산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앞질렀다. 물론 개발은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했다.

한국이 선진국을 맹추격하고 있지만 우리 뒤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다.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품은 물론 전자, IT 등 첨단산업에서의 추격이 맹렬하다.

중국의 최대 전자업체인 하이얼은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현재는 일본 히타치를 제치고 세계 9위의 전자업체로 부상했다는 얘기가. 특히 품질과 디자인에서의 중국의 발전속도는 놀라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은 중국이 유조선 수주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한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련은 전세계 조선수주의 1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세계 건설시장에서도 중국업체가 한국업체를 제치고 수주를 따내는 일이 늘고 있다.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쌓아온 건설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올들어 4월까지 미국의 對韓 수입과 대중국 수입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간중 미국의 대한 수입은 122억 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대중국 수입은 300억 7,800만달러로 11.5%나 증가했다. 대중국 수입규모도 대한국 수입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발간된 일본의 '2001년판 통상백서'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중국을 일본, 아시아 NIES에 뒤따라 발전하는 고성장 국가라고만 표현했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가장 두려운 경쟁상대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진대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더욱 무서운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쫓고 쫓기는 현실에서 우리는 부질없는 政爭으로 소일하거나 집단이기주의만을 분출시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시일내에 경제관련 법안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노조는 자기 욕심만을 채기고 경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일이 지속되서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에서 한 때 잘 나가던 국가들이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력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점이다.